

##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모 상 미

최영미 마음상담센터

정 승 아<sup>†</sup>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543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학교폭력척도,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사고척도(K-CATS: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e: KIIP-SC)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 통계와 상관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여 집단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부정적 자동적 사고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승아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Tel : 062-230-6586 / E-mail : serpent9@naver.com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DSM-III에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핵심증상은 재경험(reexperience), 회피/정서적 마비(avoidance), 과각성(hypersensual), 3가지 증상군으로 구분되어 있어 있다. 이후 DSM-IV에서도 이러한 진단기준의 골격이 유지되었지만, 몇몇 학자에 의해 진단기준상의 '한두 개라도 해당되지 않아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PTSD로 진단받지 못하는가, '3가지 증상군이 PTSD를 잘 대변하는 요인구조인가' 등 문제점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Davidson & Foa, 1991; Kilpatrick & Resnick, 1992; 안현의, 2007 재인용).

외상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이후의 심리적 결과에 따라 외상적 사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Pelcovitz, Kaplan, DeRosa, Mandal, & Salzinger, 2000; van der Kolk, Pelcovitz, 1996). 자동차 사고나 자연 재해, 강도 등 일회적인 사고 외상(Type I)은 불안장애인 단순 PTSD의 유발 원인이 된다(Terr, 1991). 그러나 대인간 폭력이 포함된 반복적인 외상(Type II)은 단순 PTSD의 불안 증상과는 또 다른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칭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는 대인 폭력의 성격을 보이는 외상경험은 Type II 외상,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발달적 외상 장애, 애착외상, 복합외상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복합외상경험은 정서문제, 행동문제,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문제, 자기-귀인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킨다(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단순 외상의 후유증은 기존의 DSM-IV에 수록된 증상 기준들과 다르

지 않으나 복합외상의 후유증은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수치심, 자존감상실, 자기 파괴적 행동,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능력 손상과 성격 변화 등으로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단순 외상에 비해 의외로 생활영역 전반에서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증상 양상도 보다 다양하다(Briere & Runtz, 1988;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예를 들어, 복합외상은 단순 외상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신뢰감 결핍, 높은 대인 불안의 문제를 야기하며(양계희, 정현희, 1990; 신혜섭, 2006; 이은희, 강은희, 2003; 이유경, 2006; 고나래, 2008; 이태영, 2011; 김진희, 2012; 박나영, 2010;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심지어 정신분열증과 우울장애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아동·청소년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배경은 외상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표현이 발달적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외상경험은 신경 전달 물질계나 두뇌의 변화, 인지 도식의 변화, 내적 표상 등 전반적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주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않게 다양한 외상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대인간 외상 경험은 대인관계문제, 우울, 성격변화,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정규, 김종술, 2000; 오혜정, 2004; 고나래, 2008; 최

은영, 2010; 장진이, 2010; Maker, Kimmelmeier & Peterson, 2001; 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복합외상 중 특히,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 단순외상보다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보처리해 해 나가느냐 하는 양상이 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고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키고(Ehlers, & Clark, 2000; Foa & Riggs, 1993; Foa & Rothbaum, 1998), 이러한 사고와 신념의 변화는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Foa, Clark, Tolin & Orsillo, 1999). 복합 외상 증상이 단순 외상과는 달리 표면적인 불안 증상들로 나타나기 보다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기능을 관장하는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구조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기(self), 타인, 외부세계에 대해 왜곡된 내적 표상으로 각인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적응적인 도식마저 부적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생성을 방해한다(안현의, 2007; 고나래, 2008; Horowitz, 1979; McFarlane and Yehuda, 1996). 복합외상경험자들의 증상이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은 이러한 인지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아동 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은 자기개념을 왜곡시키고 결국 ‘자신은 결함이 많아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 ‘타인에게 지지받거나 수용되지 못할 것’ 등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발달시키며(김운숙, 2005), 전반적인 자아손상과 성격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라면 심리적 문제는 경험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내용이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김정문, 2010). 이

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자동적 사고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고(이희연, 하은혜, 2008),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으며(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고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08; 이영화, 2011; 양재원 등, 2005). 게다가 대인관계에서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rowitz, 1979). 청소년은 복합외상경험 및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로 부정적 인지를 많이 보이는데 이는 사회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성인 사회불안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인지과정과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Alfano, Beidel & Turner, 2002; 박한아, 2006 재인용). 따라서 복합외상경험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매개하는데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복합외상경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복합외상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려 한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상담이나 치료 또는 면담장면에서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치료적 개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복합외상경험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비교적 사소한 사건, 좌절감 및 반복되는 언어폭

력 등을 경험할 때 복합외상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은 하루일과의 2/3 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이고 핵심 생활영역(한수경, 2013 재인용)이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정지선, 2007; 최윤자, 김아영, 2003). 따라서 학교폭력도 단순 외상이 아닌 복합외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따라 복합 외상의 범주에 넣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PTSD는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2013). 이는 성적학대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자체는 남녀 발생 비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여성가족부, 2004), 성적인 외상을 포함한 복합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에 있어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적학대 경험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하게 많았다는 보고도 있다(고나래, 2008). 자연재해나 큰 사고와 같은 단일 외상은 외상 경험 그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복합외상에는 관계적 외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도 포함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들로 설문 실시를 위해 사전에 학급의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과목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참여 동의서, 실시시간,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설문지 작성 중 재외상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께도 알려져 문제가 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설문지 앞부분에 연구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진행 안내 유인물과 설문지, 연구참여 동의서를 함께 배포하였다. 숙지한 학급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교과시간에 학급단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분-30분이었다. 분석한 설문지는 573부이며, 그 중에서 1문항이라도 누락된 설문지, 한 숫자로 일관된 반응을 한 설문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반응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TAQ)를 고나래(2007)가 번역,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가지 영역에 걸쳐 생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유능감(competence)’, ‘안전(safety)’, ‘방임(neglect)’, ‘분

리(separation)', '비밀(secrets)',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목격(witnessing)', '기타 외상(other traumas)', '약물 및 알코올(drug and alcohol)'로 구성되었다. '유능감'과 '안전'은 외상 경험 발생에 저항하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9가지 영역은 외상이나 심각한 사건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한다. 고나래(2008)는 TAQ 척도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임'의 요인은 정서적 학대의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어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1가지 하위 요인 중 신체적 학대(5문항), 성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6문항) 4가지 요인만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4가지 요인이 대인관계에서 얻는 외상 즉 복합외상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2001)의 보고에 따르면 임상 현장에서 TAQ의 점수가 높은 외상 경험자들이 복합 외상을 진단하는 Disorder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DESNOS)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특히, 9가지 요인 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DESNOS의 증상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없다~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5점 분포할 수 있으며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

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72, 신체적 학대 .81, 성적학대 .81 이었다.

#### 학교폭력 척도

이춘재, 박금주(2000)의 '집단따돌림 척도'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실태 조사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의 신체폭행, 금품갈취, 위협/협박,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폭력의 7가지 피해유형을 사용한 정지선(2008)의 척도 중에 가해척도를 제외한 피해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없다~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 이었다.

####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아동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 와 Rapee(2001)가 개발한 것으로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 하였다. 총 32문항의 4요인(우울인지,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기진술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0점(전혀 없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사회불안 인지 .94, 적대적 인지 .85, 우울 인지 .93, 신체적 위협 인지 .85 이었다.

###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e: KIIP-SC)

이 척도는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이다. 이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비주장성 .91, 냉담 .89, 사회적 억제 .86, 자기중심성 .80, 과순응성 .85, 통제 지배 .82, 자기희생 .80, 과관여 .81 이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중 선형회귀 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이라 부르며, 선형이라는 말을 빼고 간단히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도 한다(엑셈 백과사전, 박광배, 2013).

### 결 과

###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 < .01$ ). 구체적으로 부정적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r = .668, p < .01$ ), 복합외상 경험의 하위요인 성적학대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자기희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31, p < .01$ ). 그리고 각 남녀 상관관계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698, p < .01$ ), 여학생도 부정적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630, p < .01$ )

###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은 회귀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잠재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변인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규성을 띄지 않아도 변수의 평균만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MLR)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1.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 문제 간 상관관계 (N=543)

	M	SD	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복합외상경험	6.38	7.655	3.062	16.057	1																		
2. 정서적학대및방임	2.96	2.993	1.360	2.073	.788**	1																	
3. 신체적학대	1.63	2.555	2.301	5.928	.821**	.570**	1																
4. 성적학대	.28	1.087	5.953	44.170	.664**	.432**	.539**	1															
5. 학교폭력	1.52	3.245	3.669	17.817	.765**	.342**	.408**	.408**	1														
6. 부정적자동적사고	25.03	21.949	1.401	2.221	.565**	.476**	.447**	.297**	.442**	1													
7. 사회불안인지	6.10	7.619	1.804	3.547	.548**	.424**	.426**	.290**	.469**	.900**	1												
8. 적대적인지	8.26	5.756	.563	-.377	.314**	.248**	.244**	.142**	.273**	.753**	.535**	1											
9. 우울인지	7.43	8.137	1.576	2.405	.541**	.496**	.432**	.264**	.391**	.910**	.779**	.546**	1										
10. 신체적위험인지	3.23	4.162	1.653	2.791	.482**	.420**	.395**	.323**	.330**	.805**	.655**	.541**	.664**	1									
11. 대인관계문제	43.36	28.602	.473	-.166	.485**	.396**	.362**	.283**	.399**	.668**	.632**	.461**	.607**	.506**	1								
12. 비주장성	5.52	4.955	.641	-.574	.407**	.334**	.283**	.220**	.356**	.576**	.607**	.342**	.543**	.391**	.853**	1							
13. 냉담	4.36	4.487	.882	.065	.397**	.324**	.279**	.218**	.346**	.519**	.520**	.334**	.487**	.375**	.838**	.804**	1						
14. 자기중심성	3.70	4.319	2.064	9.495	.377**	.303**	.308**	.287**	.271**	.421**	.380**	.317**	.388**	.328**	.742**	.618**	.728**	1					
15. 사회적억제	5.66	4.764	.538	-.599	.388**	.304**	.273**	.213**	.349**	.534**	.533**	.344**	.477**	.397**	.870**	.779**	.786**	.624**	1				
16. 과소응징	5.65	4.483	.612	-.223	.384**	.323**	.274**	.224**	.317**	.578**	.586**	.314**	.557**	.433**	.866**	.766**	.645**	.529**	.724**	1			
17. 통제지배	4.58	3.903	.802	.561	.437**	.375**	.356**	.290**	.308**	.541**	.474**	.428**	.476**	.463**	.729**	.413**	.493**	.524**	.529**	.541**	1		
18. 자기희생	8.11	4.620	.106	-.545	.304**	.252**	.220**	.131**	.267**	.537**	.499**	.411**	.477**	.421**	.717**	.530**	.412**	.297**	.551**	.676**	.492**	1	
19. 과반어	5.79	4.379	.522	-.315	.414**	.328**	.336**	.242**	.327**	.553**	.524**	.468**	.463**	.415**	.752**	.460**	.445**	.427**	.534**	.612**	.756**	.615**	1

\*p<0.05, \*\*p<0.01

표 2. 청소년의 복합의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 문제 간 상관관계 (n=277, 남자)

	M	SD	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복합의상경험	7.08	8.652	3.238	16.566	1																		
2. 경서적학대및방임	3.11	3.113	1.363	2.031	.774**	1																	
3. 신체적학대	1.75	2.700	2.291	5.793	.844**	.606**	1																
4. 성적학대	.33	1.285	5.754	38.840	.733**	.482**	.639**	1															
5. 학교폭력	1.89	3.818	3.487	15.248	.792**	.347**	.496**	.480**	1														
6. 부정적자동적사고	22.90	21.566	1.708	3.824	.607**	.463**	.482**	.397**	.524**	1													
7. 사회불안인지	5.44	7.526	2.208	5.768	.590**	.392**	.470**	.398**	.551**	.897**	1												
8. 적대적인지	7.86	5.752	.656	-1.29	.319**	.230**	.236**	.196**	.304**	.736**	.486**	1											
9. 우울인지	6.78	7.853	1.746	3.316	.570**	.472**	.465**	.342**	.464**	.920**	.799**	.543**	1										
10. 신체적위협인지	2.83	4.110	1.941	4.081	.563**	.487**	.452**	.425**	.427**	.818**	.666**	.555**	.693**	1									
11. 대인관계문제	39.27	28.547	.852	1.039	.553**	.403**	.431**	.355**	.499**	.698**	.648**	.669**	.540**	.648**	1								
12. 비주장성	4.83	4.792	.897	.127	.461**	.323**	.336**	.286**	.446**	.568**	.572**	.333**	.554**	.407**	.826**	1							
13. 냉담	3.68	4.408	1.382	1.654	.483**	.358**	.380**	.307**	.442**	.493**	.341**	.546**	.409**	.826**	.777**	.826**	1						
14. 자기중심성	3.19	4.541	3.073	16.641	.428**	.301**	.374**	.349**	.343**	.421**	.351**	.290**	.433**	.333**	.704**	.556**	.690**	1					
15. 사회적억제	5.21	4.771	.763	-.167	.434**	.306**	.333**	.257**	.419**	.561**	.524**	.350**	.555**	.434**	.872**	.769**	.795**	.582**	1				
16. 과소응성	4.95	4.381	.867	.421	.451**	.353**	.338**	.267**	.405**	.654**	.614**	.346**	.639**	.498**	.876**	.731**	.649**	.499**	.743**	1			
17. 통제기배	4.35	3.924	.996	1.179	.498**	.392**	.422**	.378**	.384**	.547**	.483**	.385**	.501**	.493**	.728**	.377**	.474**	.475**	.506**	.588**	1		
18. 자기회생	7.62	4.861	.183	-.681	.316**	.233**	.231**	.151*	.312**	.563**	.515**	.440**	.508**	.423**	.743**	.541**	.421**	.304**	.574**	.682**	.509**	1	
19. 과관련	5.44	4.475	.728	.109	.434**	.302**	.340**	.268**	.406**	.572**	.534**	.475**	.488**	.426**	.734**	.416**	.397**	.346**	.503**	.634**	.749**	.626**	1

\*p<0.05, \*\*p<0.01

표 3.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자동적사고, 대인관계 문제 간 상관관계 (n=266, 여자)

	M	SD	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복합외상경험	5.66	6.386	2.143	6.575	1																			
2. 정서적학대및방임	2.80	2.861	1.339	2.053	.820**	1																		
3. 신체적학대	1.50	2.394	2.277	5.847	.793**	.522**	1																	
4. 성적학대	.23	.831	4.915	28.805	.515**	.357**	.375**	1																
5. 학교폭력	1.13	2.460	3.027	9.903	.697**	.338**	.351**	.220**	1															
6. 부정적자동적사고	27.24	22.167	1.138	1.040	.560**	.508**	.425**	.177**	.389**	1														
7. 사회불안인지	6.78	7.669	1.448	1.825	.537**	.475**	.391**	.152*	.410**	.903**	1													
8. 적대적인지	8.69	5.739	.483	-.576	.337**	.279**	.264**	.074	.270**	.768**	.580**	1												
9. 우울인지	8.11	8.383	1.434	1.749	.532**	.538**	.413**	.179**	.347**	.900**	.757**	.544**	1											
10. 신체적위협인지	5.66	4.182	1.416	1.895	.411**	.363**	.346**	.201**	.241**	.788**	.657**	.542**	.630**	1										
11. 대인관계문제	47.62	28.085	.109	-1.018	.452**	.416**	.307**	.210**	.322**	.630**	.649**	.444**	.539**	.457**	1									
12. 비주장성	6.24	5.030	.412	-1.009	.396**	.370**	.249**	.158*	.304**	.573**	.634**	.338**	.523**	.360**	.876**	1								
13. 냉담	5.06	4.471	.438	-.906	.334**	.314**	.188**	.118	.280**	.485**	.535**	.314**	.419**	.322**	.844**	.822**	1							
14. 자기중심성	4.23	4.016	.758	-.171	.340**	.327**	.241**	.208**	.199**	.409**	.400**	.339**	.330**	.306**	.781**	.678**	.767**	1						
15. 사회적억제	6.12	4.720	.321	-.893	.363**	.315**	.229**	.168**	.296**	.498**	.574**	.329**	.392**	.347**	.867**	.783**	.773**	.666**	1					
16. 과순응성	6.38	4.478	.393	-.565	.357**	.319**	.238**	.200**	.266**	.511**	.550**	.267**	.470**	.391**	.849**	.789**	.623**	.548**	.698**	1				
17. 통제지배	4.82	3.665	.596	-.110	.375**	.363**	.283**	.161**	.218**	.530**	.459**	.471**	.447**	.426**	.731**	.446**	.510**	.581**	.549**	.486**	1			
18. 자기회생	8.61	4.307	.092	-.347	.322**	.293**	.223**	.116	.239**	.501**	.473**	.368**	.438**	.406**	.679**	.503**	.393**	.267**	.470**	.663**	.464**	1		
19. 과관여	6.16	4.254	.313	-.676	.419**	.372**	.344**	.223**	.246**	.531**	.507**	.453**	.432**	.394**	.769**	.496**	.485**	.516**	.582**	.762**	.596**	.596**	1	

\*p<0.05, \*\*p<0.01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매개 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줄어든다(최은영, 2011, pp. 293; 이국화, 2009, pp. 1-18). 상관분석에서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기에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 위한 앞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첫 번째 단계는 복합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종속변인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

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복합외상경험을 통제하고 난 후에 대인관계문제와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복합외상경험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복합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수로 추가되면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결과( $\beta=.158, p<0.001$ )를 보이고 있고, 설명력을 의미하는 adj-R<sup>2</sup>값은 .318에서 .461로 증가하였다. Sobel test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을 막아주고, 매개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주는 효과가 있다(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Baron & Kenny, 1986). 검증 결과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함

표 4. MLR 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beta$	p	B	$\beta$	p	B	$\beta$	p
상수	14.683		.000	31.783		.000	20.713		.000
복합외상경험	1.620	.565***	.000	1.814	.485***	.000	.592	.158***	.000
대인관계문제							.754	.579***	.000
F	253.373***			166.609***			233.216***		
R <sup>2</sup>	.319			.235			.463		
수정된 R <sup>2</sup>	.318			.234			.461		
Sobel test: z=10.936, p=.000									

을 의미한다. 이에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실시한 결과( $z=10.936, p<0.001$ ),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 본 결과는 표 5,

6과 같다. 복합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수로 추가되면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문제가 매개변수에 흡수되어 감소되는 결과(남학생:  $\beta=.205, p<0.001$ ; 여학생:  $\beta=.145, p<0.001$ )를 보이고 있고, 설명력을 의미하는 adj- $R^2$ 값은 남학생의 경우 .366에서 .509로, 여학생의 경우

표 5. 남학생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beta$	p	B	$\beta$	p	B	$\beta$	p
상수	12.187		.000	26.353		.000	17.107		
복합외상경험	1.513	.607***	.000	1.824	.553***	.000	.676	.205***	.000
대인관계문제							.759	.573***	.000
F	160.385***			120.976***			144.322***		
R <sup>2</sup>	.368			.306			.513		
수정된 R <sup>2</sup>	.366			.303			.509		
Sobel test: $z=8.250, p=.000$									

표 6. 여학생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beta$	p	B	$\beta$	p	B	$\beta$	p
상수	16.243		.000	36.366		.000	25.081		
복합외상경험	1.943	.560***	.000	1.990	.452***	.000	.640	.145*	.011
대인관계문제							.695	.548***	.000
F	120.494***			120.976***			91.833***		
R <sup>2</sup>	.313			.306			.411		
수정된 R <sup>2</sup>	.311			.303			.407		
Sobel test: $z=7.249, p=.000$									

.311에서 .407로 증가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z=8.250$ ,  $p<.001$ ; 여학생은  $z=7.249$ ,  $p<.001$  로 나타나 남/여 집단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이나 논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고나래, 2008; 김진희, 2012; 한수경, 2013; 이태영,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복합외상 경험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

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복합외상으로 인하여 부적응적이고, 왜곡되게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요인이 중요하고(Rapee & Heimberg, 1997),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진술 등의 역기능적 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Glass & Furlong, 1990)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사회적 외상 경험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인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였던 선행연구(송은영, 2005)결과도 일치한다.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의 성차를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 평균, 대인관계문제 평균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이희연(2007)과 하은혜와 송동호(2005)의 연구에서 적대적 인지가 여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외상경험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고려함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때와 유사하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고나래(2008)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우울, 인지적 왜곡, 사회불안 등이 남자 청

소년 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구미란, 2008; 이희연, 2006; 김나정, 2015), 추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내재화 장애 및 외현화 장애의 인지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부정적 인지 척도를 사용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복합외상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등 외상이 발생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명시하여 각각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인간 외상경험을 개개의 사건이나 피해로 정의하지 않고, 복합외상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였고 이러한 복합외상이 청소년에게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은 복합외상경험에 속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또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주요한 대인간 외상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몇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에 포함시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이다. 사람에 따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 태도에 따라 결과도 다른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발달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PTSD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보여 지는 외적 특성으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의 부정적자동적사고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탐색한 뒤, 각 개인에게 독특한 부정적 사고의 내용과 이를 교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나 큰 사고와 같은 단일외상은 외상 경험 그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성별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지만 복합외상, 대인관계문제, 부정적자동적사고 하위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는 기존 연구결과 인용하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성차 및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높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할 경우, 보다 더 부정적 사고의 세부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고, 광주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상경험의 발생시점의 연령, 외상의 지속기간 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증상이나 후유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부정적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미란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정 (2015).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70.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사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2). 아동·청소년기 복합 외상경험과 정서기능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엑셈백과사전. 다중회귀분석 (2016) Big data document, <http://www.exemwiki.com/?p=4646>, 2017. 2. 10 검색.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박광배 (201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 박나영 (2010).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복합 외상 증상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아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영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232-241.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2007). 복합 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 (2005).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N)와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P)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31-646.
- 여성가족부, (2004).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오경자, 양윤란 (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Ⅱ: 6개월 추적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아카데미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편),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 이영화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 애착과 자동적 사고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강은희 (2003). 청소년들의 지배성, 우울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23-353.
- 이춘재, 광금주 (2000). 學校에서의 集團따돌림: 實態와 特性. 서울 :集文堂.
- 이태영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47-561.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선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의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자, 김아영 (2003).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교육심리학회, 17(1), 149-166.
- 최은영 (2010).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경 (201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fano, C. A., Beidel D. C., & Turner, S. M. (2002). Considering cognition in childhood anxiety: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8, 1-2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2, 331-341.
- Briere, J., & Runtz, M.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Davidson, J. R. T., & Foa, E. B. (1991). Diagnostic issu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iderations for the DSM-I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46-355.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63-80.
- Ehlers, A.,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Guilford Press. Association.
- Foa, E. B.,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ape*.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273-303.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Horowitz, L. M., & de Sales French, R. (1979). Interpersonal problems of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lone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62-764.
- Horowitz, L. M.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oring procedures*.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ilpatrick, D. G., & Resnick, H. S. (1992). A descript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eld trial. In J.R.T. Davidson & E. B. Foa(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SM-IV and beyond* (p.243-250).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DESC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 373-392.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ker, A. H., Kimmelmeier, M., & Peterson, C. (2001). Child sexual abuse, peer sexual abuse, and sexual assault in adulthood: a multi-risk model of revictimization. *J Trauma Stress*, 14(2), 351-368.
- McFarlane, A. C. and Yehuda, R. A., (1996).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Pelcovitz, D., van der Kolk, B. 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n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the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3-16.
- Rapee M., & Richard G., Heimber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441-756.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Snook, S. C., & Gorsuch, R. L. (1989). Component analysis versus common factor analysis: A Monte Carlo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106(1), 148-154.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55-267.
- Tak, J. K. (2007). Psychological testing: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 (2nd ed.). Seoul: Hakjisa Publisher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459-472.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van der Kolk, B. A. (2001). The psychobiology and psychopharmacology of PTSD, *Hum Psychopharmacol*, 16(1), 49-64.
- Wilson, J. J., & Rapee, R. M., (2005). The interpretation of negative social events in social phobia: change during treatment and relationship to outcom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373-389.
- Zucker, M., Spinazzola, J., Blaustein, M., & van der Kolk, B. A. (2006).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7, 19-32.
- 원고접수일 : 2016. 10.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2. 13.  
게재결정일 : 2017. 02. 20.

## The Impact of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Sang mi Mo

Choi Yeongmi Mind Counseling center

Seung Ah Jung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mediated effects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with respect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plex trauma among adolescents. A total of 640 adolescents, who attended one of the three middle and high schools in Kwangju area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measuring instruments,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school violence scale,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 and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 SC) were used.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cted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by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omplex trauma experience,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interpersonal problem, which were all meaningfully related to one another. Moreov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for different sex, complex trauma experi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were partially mediated b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in both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interpersonal problems, automatic negative thoughts*